

전주-독일 문화·산업 교류방안 논의

주한독일대사관·주한독일문화원, '전주세계문화주간' 추진 위해 전주 방문

전주시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행사로 자리 잡은 '전주세계문화주간'의 추진을 위해 주한독일대사관과 주한독일문화원의 관계자들이 24일 전주를 찾았다.

이날 전주를 찾은 주한독일대사관 등 대표단은 전주시청을 찾아 올해 독일문화주간에 성공적인 개최를 논의하고, 전주-독일 문화 및 산업 교류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대표단은 전주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전주한옥마을과 세병공원 등을 둘러본 후 장소별 프로그램 추진 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했다.

이어 전주시립교향악단을 찾아 성기선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독일문화주간에 선보일 독일 클래식 공연에 대해 논의했고, 전북대학교 독일학과 교수진과 행사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전주시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행사로 자리 잡은 '전주세계문화주간'의 추진을 위해 주한독일대사관과 주한독일문화원의 관계자들이 24일 전주를 찾았다.

시는 올해 한독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주한독일대사관, 주한독일문화원 등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독일대표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9월 1일부터 7일까지 소리문화의전당 등 전주시 일원에서 '전주 세계문화주간 2023 독일문화주간'을 개최한다.

독일문화주간 동안 전주 시민 및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베토벤, 모차르트 등의 유럽 음악가와 칸트, 헤겔 등의 철학자, 괴테, 헤르만 헤세 등의 작가 등을 배출한 대표적인 문화강국의 정수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클래식한 독일의 문화 뿐만 아니라, 독일의 동시대 문화를 보여줄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미국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주한 해외대사관 및 문화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 세계문화주간'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본 사업은 대표적인 국제교류 우수사례를 수상하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반현아 국제협력담당관은 "올해는 한독수교 기념 140주년으로 매우 뜻깊은 해이다"면서 "올해는 특히, 독일의 주요기관,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시립교향악단과 독일의 솔로리스트 협연, 전북대학교 독일학과와의 협력, 전주대학교 독일학과와의 협력, 이 매우 기대되며 시민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물 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금산사, 도시락 1000개 나눔

소방서·보건소 관계자·취약계층 어르신에 제공

금산사가 부처님 오신 날(27일)을 앞두고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힘쓴 전주시보건소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도시락 나눔 행사를 했다.

금산사는 도시락 1천개를 준비해 도내 소방서와 보건소 등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일선에서 노력하는 관계자들과 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찰식 도시락은 사찰음식 전문가이신 정효스님(장수 영월암 주지)이 준비했으며, 일품 가지 잡

곡을 넣은 건강밥, 채수 미역냉국, 느타리강정, 두부간장조림, 생파콩조림, 열무무침, 오이무침, 브로콜리샐러드 등의 식단으로 채워졌다.

금산사 주지 일원스님은 "사회취약계층 및 코로나19 방역 관계자들에 대한 사찰음식 나눔행사는 불교의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고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생명을 존중하고 지구를 살리는 사찰음식의 기본정신이 널리 퍼져 도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문화에도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세 사기 사전 차단 '안심상담 공인중개사' 본격 운영

전주시 덕진구, 무료 상담 지원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가 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강동전세 등 전세 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안심상담 공인중개사'를 지정,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안심상담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관련 경험이 풍부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중,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구민들에게 전·월세 안심계

약 도움 서비스를 시작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등을 진행한다.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서비스는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 형태로 이루어지기에 구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지난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안심상담 공인중개사를 모집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19명을 선발했다. 지정된 안심상담 공인중개사는 ▲인후2동 ▲김재경(그랜드경매), ▲인후3

동 ▲유경남(인후현대) ▲박진희(행복나라), ▲덕진동 ▲이용남(덕진) ▲강기찬(기찬), ▲금안1동 ▲제태모(제테크) ▲박수연(복대), ▲금안2동 ▲임남숙(대자연), ▲우이동 ▲윤봉현(금잔디), ▲호성동 ▲강인석(포커스), ▲송천1동 ▲김영진(빅토리) ▲강장순(알짜) ▲유은숙(더진흥) ▲정민양(송천), ▲송천2동 ▲김재범(센트럴파크), ▲여의동 ▲이정진(정보), ▲혁신동 ▲전순자(혁신금나라) ▲이경덕(신신) ▲신중환(신중환) 등이다.

이들의 활동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이며, 1년 후 상담실적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공인중개사에게는 구에서 지정관과 지정증을 배포, 사무실 내·외부에 지정관을 부착할 수 있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전세 사기는 집 없는 사람들을 극단과 절망으로 내몰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부시장과 교류 논의

전주시의회는 24일 공무원외출장연수단(단장 송영진 의원)이 지난 22일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전주시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의 국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데슬리 심슨 오클랜드 부시장과의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클랜드시는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약 1/3이 거주하는 최대 금융·상업도시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전주시와 유사한 도시다.

데슬리 심슨 부시장은 "뉴질랜드에서 최근 한국 문화와 예술 k-po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시가 오클랜드를 방문하여 기쁘다"며 "오클랜드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진 연수단장은 "뉴질랜드의 도서관 정책, 생활 체육, 생태관광 등의

부분에서 전주시와 오클랜드시가 상호 소통과 교류하면서 양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연수단은 이번 만남에서 한식·한복 등 전주시의 한(韓)스타일을 소개하며 향후 오클랜드와 한(韓)문화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화 '반지의 제왕', '호빗' 촬영지로 유명한 호비튼(Hobbiton)을 찾은 연수단은 헨리 호네 데의 협력부장을 만나 영화 촬영지 관광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주시의회는 연수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전주의 영화 촬영지 및 관련 시설의 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 등 전주시를 체류형 관광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을 기울인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레드팀·블루팀으로 나눠 조직 혁신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조직의 혁신을 이끌 생두마차로 '레드팀'과 '블루팀'을 운영한다. 두 팀을 필두로 '신상필벌'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공단의 발전을 꾀한다는 게 공단의 계획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노사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 조직을 꾸리고 24일 구성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단 노동자 사측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TF에 참여한다.

TF는 '레드팀'과 '블루팀'으로 나뉘며, 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부장을 비롯해 직원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공단은 레드팀을 통해 감사 기능

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시 제보시스템을 구축해 수시로 복무 위반 및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복무 분야와 부패 분야를 세분화해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비위 행위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블루팀은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복무규정의 숙지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고, 근태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수범사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상하고 장려함으로써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간부 공무원 163명 대상 인권교육 실시

전주시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총 3회에 걸쳐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인태 부시장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6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은 인권존중에 기반한 행정을 뿌리 내리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목표로 임대성 전라북도경찰청 수사관을 초청해 진행됐다.

강사로 초청된 임대성 경위는 '함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이어갔다.

임 경위는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해 듣는 대화

법을 배워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자"고 강조했다.

또 직장내 괴롭힘 유형 사례들을 통해 일상생활에도 사용하는 비폭력 대화법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가졌고, 다양한 말하기의 요소 및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현수 전주시 인권법무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대화법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이 긍정적인 조직 문화 형성에 실행하는 시간이 돼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 전주 구현을 위한 교육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